

설맞이 장보기는 전통시장이 '으뜸'

전주시내 전통시장서 할인·체험행사 등 진행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대형 마트와 비교해 값도 싸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이 각종 할인행사와 경품행사도 더욱 풍성해진다.

23일 전주시 전통시장육성지원사무소에 따르면 남부시장과 신중안시장, 모래내시장 등 전주시에 등록된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장상인들과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남부시장 변영화는 오는 26일까지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남부시장을 대표하는 캐리커진 수납이 부치와 함께 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떡메치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남부시장 상인회는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견어물과 버섯, 과일, 잡곡 등 설 선물세트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명절선물세트 할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모래내시장 상인회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100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시장 내 복합문화공간에서 따뜻한 커피를 제공하고, 5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해 고객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전주시의회가 23일 설을 맞아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전북 전주 시 덕진동에 위치한 새롭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을 대상으로 톨렛 이벤트를 통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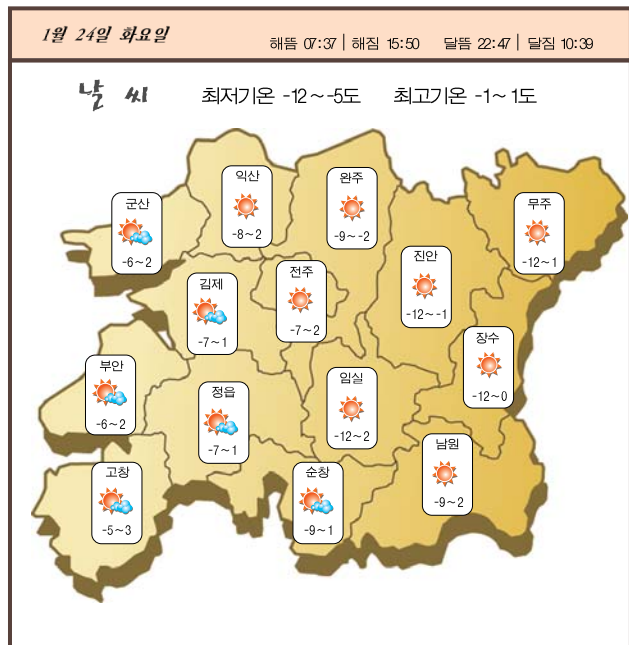
설 명절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남부시장 천변주차장이 25일부터 29일까지, 신중안시장과 중앙상가 주차장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모래내시장 주차장은 28일부터 29일까지, 서부시장 주차장은 27일부터 29일까지 각각 무료로 개방된다.

이와 관련, 시는 설을 맞아 직원들이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앞장서고,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과 각 동 자생단체 회원들은 23일 사전에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 등 전통

시장에서 명절 준비와 선물을 구입하는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또, 24일에는 신중안시장과 모래내시장, 서부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전통시장육성지원사무소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시, 설 연휴기간 종합상황실 운영

총괄·청소·교통·재해 대책반 구성 27일~30일까지

전주시가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기간 시민들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따뜻한 설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운영·총괄반과 청소대책반, 교통대책반, 재해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완산·덕진구청과 맑은물사업본부, 보건소에서도 자체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총 355명의 직원이 연휴를 반납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기로 했다.

종합상황실과 자체상황실에서는 시민들의 편안한 명절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과 도로, 상하수도, 청소, 가로, 보안 등의 6대 생활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종합상황실 4개반은 각 반별로 1명은 상황유지하고 나머지 1명은 현장순찰을 통해 사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구청 생활민원 처리반은 연휴기간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찰서와 소방서, 한전, KT, 도시가스 등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모든 시민과 귀성객이 불편함 없는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가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사건·사고 예방과 생활민원의 신속한 대처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도 제작사업' 진행

올해 도내 8개 초등학교에서 아동 안전지도 제작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3일 전북도교육청은 아동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아동 안전 지도 제작사업'을 8개 초등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학교당 3~6학년 중 20

명으로 이뤄진 학생들이 인솔 교사와 함께 학교 주변 현장조사와 함께 안전지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지도 제작 사업은 올 10월까지 완료되며 8개 선정 학교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만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완주 동상초,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 선정

아이·행복·삶 중심 교육실천 '동상 HeaLING 교육'

완주 동상초등학교 교장 장명순(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14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동상초교는 교육부 주관으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Happy Edu 교육과정 페스티벌'에서 이같은 영예를 안아 교육부장관 학교표창과 교육 포상금 5백만원을 수여받았다.

2일간 열린 교육과정 페스티벌에서 동상초교는 교육과정 전시부스를 운영하고 최우수학교로서 사례 발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전시와 운영사례 발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많은 교원들의 질문과 자료 요청으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학생들이 출간한 4종의 책인 동상교육의 면모를 한눈에 보여주며 뜨거운 반응으로 화제를 모았다.

산간벽지에 위치한 동상초교는 교육에 연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결핍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생애교육의 보고로 새롭게 판점을 전환하면서 생태감성 힐링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전략으로 삼고 동상 HeaLING 교육을 브랜드화 하였다.

또한 지역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존폐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상편의 주요 산업인 '감'을 소재로 '4계절 감 프로젝트'를 4년째 운영하며 기후온난화로 인한 산업이 되어가는 곳감 판매 위주의 지역 산업을 6차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아이·행복·삶 중심교육을 실천하는 동상초등학교의 HeaLING 교육은 현재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통해 홍보되기 시작해 2015년 3월 1일자 대비 현재 학생 수가 32% 증가하여 2017학년도 5학년 편성을 면하게 되었다.

장명순 교장은 "오늘의 성과가 있

기까지는 오롯이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학생들의 성장이 가져다주는 교육자로서의 참 기쁨과 아이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